

**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.

발 의 자 : 박홍배 · 이기현 · 이상식  
민병덕 · 김현정 · 김남근  
강득구 · 강훈식 · 한준호  
박균택 · 김영진 · 이광희  
의원(12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, 구상금,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·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「민사소송법」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,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,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·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.

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,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, 비용,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제1항).

##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3호(종전의 제22호) 중 “제21호”를 “제22호”로 한다.

2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의2(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, 구상금,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20조의2(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1. (생략)	1. ~ 2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설&gt;</u>	<u>2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</u>
	<u>따른 근로복지공단</u>
<u>22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, 제7호부터 <u>제21</u>	<u>23.</u> -----
<u>호</u> 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	----- <u>제22</u>
원규칙으로 정하는 자	<u>호</u> -----
② ~ ⑤ (생략)	-----
	② ~ ⑤ (현행과 같음)